



선진국 방폐장 - 최적의 자연 환경과 국민 의식

취재 기자 방담

특/별/취/재/반

반장 이석원 부장
최한성 기자
김선애 기자

이석원 기자(이하 이석원) 지난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스웨덴의 포르스마르크 방폐장과 프랑스 로브 방폐장, 그리고 독일의 원자력에 대해, 또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룩카쇼 방폐장에 대한 현지 해외 취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외 현지 취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방폐장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최고의 자연 환경, 최적의 방폐장
최한성 기자(이하 최한성) 스웨덴 포르스마르크는 자연 환경이 잘 가

꾸어져 있더군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방폐장이나 원전이 함께 건설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혐오 시설이 있다고 해서 주변 환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원전이나 방폐장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많이 차이나는 모습이더군요. 의견상으로는 방폐장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부정적 모습은 유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원 땅이 넓으니까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실제로 포르스마르크 방폐장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과 아주 가깝지는 않아서 불안하다는 심리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여유로움이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라 생각합니다.

해안선 쪽으로 군사 시설이 있어 사진 촬영을 못하는 등의 일부 제약은 있었지만, 방폐장 측에서도 주변 경관에 대한 자랑을 위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방폐장의 겉 모습은 공장, 창고 같은 경직된 느낌이 있지만 이 건물들의 삭막함을 해소해 줄 만큼 주변 경관이 좋았습니다.

최한성 그렇습니다. 포르스마르크의 주변 환경은 방폐장이 줄 수 있는 선입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변 환경과는 관계없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지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사람들이기에 그것이 위험 시설,



포르스마르크 방폐장의 주변 환경

협오 시설이라는 생각을 별로 깊이 하지않더군요.

어떤 주민은 굳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방폐장이 부근에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산다고 합니다. 협오 시설이니 위험 시설이라는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마치 마을 부근에 커피 공장 하나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더군요.

김선에 기재(이하 김선애) 그런 점은 일본 롯카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폐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 정부가 대규모 공업 단지로 사놓은 땅이라 여유가 있더군요. 게다가 부지가 엄청나게 넓은데 비해 실제 방폐장 시설은 절반 밖에 쓰지 않아 굉장히 넓은 생각이 들었어요. 롯카쇼에 도착해 원자력 홍보관 찾을 때 길을 잘못 들어 2시간 가까이 헤매기도 했으니까. 그만큼 땅이 넓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무엇보다 주택

지와 원전 시설간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전 시설에 도착하지 않는 한 아예 시설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위험함을 못 느끼는 듯 합니다.

이석원 롯카쇼와 우리의 실정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근에 사람이 살지 않아도 되는 국토의 여유로움은 축복받은 일 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땅의 여유가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선애 그러게요, 안타까운 일 이죠. 사실 롯카쇼 주민들 중에는 막연하게 방폐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막연한 걱정 정도였습니다. 별로 관심 안 갖는다는 말이 더 맞을 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 보상과 주민 합의

김선에 지역 복지 시설은 어떤가요? 롯카쇼의 복지 시설은 참 좋던데. 인구가 1만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지만 문화 시설도 아주 잘 돼 있고, 대형 쇼핑몰 등의 편의 시설도 좋아요. 신용 카드도 거의 통용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말이죠. 대형 문화 공연도 자주 열린다고 하더군요.

최한성 스웨덴이나 프랑스 로브의 경우는 지역 복지 시설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워낙 인구 밀도가 낮으니 학교·병원 등의 공공 시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의 롯카쇼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스웨덴 포르스마르크는 이미 그 시설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돼 있어 인근 마을에는 작은 학교와 식당, 그리고 호텔 등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연 학습장 같은 시설도 있었고, 소방서가 있어 부근 큰 마을까지 응급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하는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을 안내하던 현지 통역인도 우리가 도착하기 3일 전에 방폐장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부근 읍살라의 큰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다는군요.

이석원 스웨덴의 포르스마르크나 프랑스 로브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어느 정도 문명과 동떨어진 공간이라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히 복지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롯카쇼는 방폐장을 건립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면서 복지 시설도 동반됐지만 포르스마크나 로브는 특별한 경제적 보상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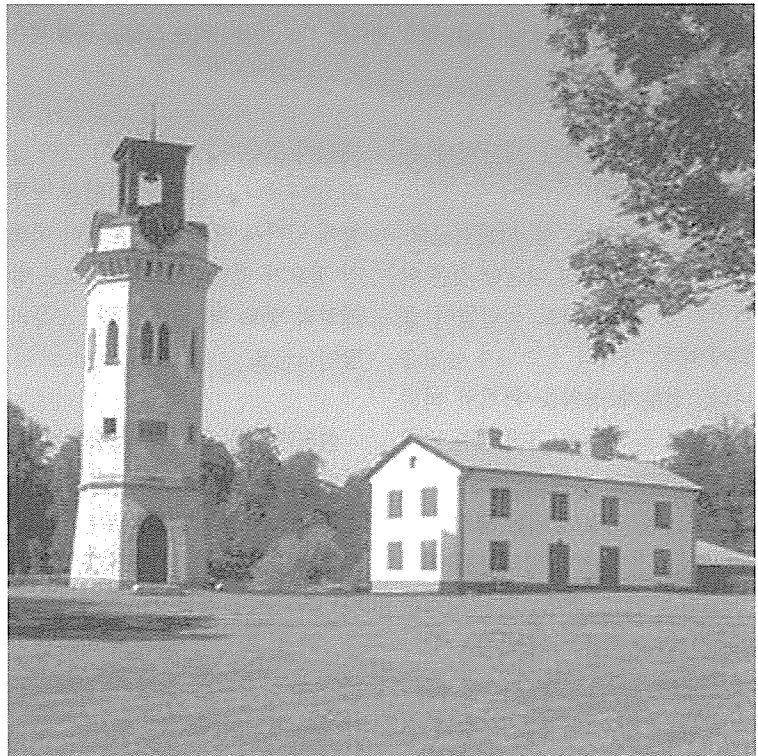
애기가 나온 김에 방폐장이 설립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최한성 스웨덴은 인근 마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군요. 로브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보상 혜택을 대신하지만, 포르스마크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방폐장으로 인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고, 위험성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도 아니어서 따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것이 억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신 앞서 말했듯이 포르스마크의 방폐장 자체가 관광지화 되다 보니까 부근 마을에서는 관광 수입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 식당에서는 방폐장 부근 바다나 호수에서 잡은 생선으로 만든 요리가 일품이어서 그로 인한 수입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 생선 요리를 먹으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



일본 롯카쇼 방폐장 주변 환경



포르스마크 방폐장 주변 마을은 이미 관광지화 되어 있다.



프랑스 로브 방폐장 부근의 마을.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는 느낌을 금방 받을 수 있다.

폐장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이석원 프랑스는 좀 다르더군요. 경제적 보상도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공익에 대한 가치의 성숙도가 높았습니다.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일단 그리 심한 반대를 하진 않았던 거죠.

결국 주변 마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것이 주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데 프랑스는 별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최한성 프랑스의 경우 또 하나 경제적 보상이 적었던 이유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국유지라는 점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그리 많지 않다보니 어떤 국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땅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없던 것죠. 물론 로브 방폐장의 땅도 처음부터 국가 소유의 땅이더군요.

성숙한 국민 의식과 국가의 노력

이석원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에게서 받았던 감동적인 부분은 “우리 세대에 만들어진 쓰레기를 후대에 물려주지 말자”는 의식이었어요. 이런 의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주민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독일의 환경 단체도 마찬가지

지였습니다. 바이에른주 자연보호 협회에서 원자력은 반대하지만 방폐장은 꼭 지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방폐장 설립을 미루다 보면 결국 그 모든 부담과 책임을 자식들의 세대로 넘기는 무책임한 선대가 된다고 생각하더군요.

김선에 일본 롯카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설립 전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원전 시설 관계자들이랑 공무원들의 노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주민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일대일로 만나 친해지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가정마다 방문해서 설명하고, 동네 잔치에 참가하고, 잔치를 먼저 열기도 하는 등 주민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경제가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 강조점을 뒀더군요. 그 동네가 워낙 가난한 마을이다보니, 방폐장 건설 추진을 매끄럽게 진행시킬 수 있었던 포인트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이석원 결론을 내리자면 국민들의 자발적 책임 의식과 관련 단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방폐장에 대한 위협 의식과 거부감을 줄여 안전한 방폐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